

의약품 약국외판매 관련 대한약사회 의견

의약품 구입에 있어 국민의 불편은 해소되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의 안전성마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과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의 슈퍼판매 정책방향에 있어 의약품의 안전성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약품의 슈퍼판매는 국민건강의 큰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사용에 있어 위기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된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위해요인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식품의 경우도 이미 반복적으로 위해요인이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곤 하였습니다. 문제는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슈퍼에서 팔리는 의약품에 대한 위기관리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까?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국외 의약품 판매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2008년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의약품사용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간 의약품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가 10명중 4명꼴(38.7%)로 파악된 것을 보더라도 위기관리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일반의약품은 약국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일반의약품의 시장규모는 약 1조 7천억(한국IMS자료)정도입니다. 처방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다수약국(40-50%)의 생존의 근거입니다. 약국생존은 약국접근성의 문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가정상비약 수준의 의약품

의 시장규모가 1조7천억의 40% 수준인 7천억 수준입니다. 가정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는 동네약국의 생존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동네약국의 폐업으로 이어져 약국의 접근성을 매우 악화시키고 국민불편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의약품은 약사의 기득권 문제가 아니라 약사의 생존권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불편은 약국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에 20-25%의 약국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사회와 약사들은 주1회 야간 12시까지 근무와 일요일 월 1회 근무를 결의했습니다. 약사들이 주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에 성심을 다하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관리에 있어 약사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약사 1인 근무약국이 많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문시간 연장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로서 반드시 지켜가고자 합니다.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약국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게 해야 된다는 논리는 결국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한 검증도 없이 불편하니까 약국외에서 편하게 사게 하자라는 논리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편의성 보다 국민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있어 위해 요인을 제거해야한다는 것이 약사들의 진정성입니다.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할 의약품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다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전체 회원의 의지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약사들의 이익이

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성의 문제에 앞서서 의약품 사용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사의 관리 하에 의약품이 사용되는 것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야간 및 휴일의 의약품 구입 편의성의 문제는 저희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단 한명의 국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의지와 신념을 믿어주시고 더 나은 서비스로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약사들에게 국민과 함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0일

대한약사회 6만회원 일동